

尹,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불통' 이미지 벗을까

소통 방침, 향후 3년 국정구상 설명 지역 균형발전 등 분야별 질의 응답 채상병특검법 등 민감현안도 답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열리는 기자회견이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각 분야별 질의 응답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질문이 예상되는 정책과 현안을 정리하면서 주제별 참모 회의를

통해 입장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제외하면, 기자회견 준비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원활한 소통'에 방침을 두고 있다.

모두발언 메시지 작성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최근 저녁 늦게까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담을 내용을 선별하고 메시지를 고르는 작업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의 국정 소회와 향후 3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지에 대한 전반적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 안정'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과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약 21분간 이어진 모두발언에 대해 '일방적 홍보' 비판이 나오기도 했던 만큼, 이번엔 비교적 간결한 메시지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경제·민생'과 '국방·외교·안보', '정치', '지역 균형발전' 등 각 분야별로 질문을 받고 답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무총리 인선 구상과 야당과의 협치, 연금개혁, 농산물 물가 추이, 수출 경기 전망, 에너지 가격 인상, 연구개발(R&D) 지원 정책 등 주요 현안들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신 기자들도 참석하는 회견인 만큼, 북한 핵 문제 및 남북관계 악화, 한일·한미일 관계, 한중일 정상회의, 미국

대선, 한-러시아 관계 등 민감한 국제 현안들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질문도 가리지 않고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등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기자회견 재개를 기점으로, 기자단 약식 간담회 등 윤 대통령의 언론 접촉 면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황우여 국힘 비대위원장 취임 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취임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윤재옥 원내대표와 같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

국힘 원내대표, 이종배·송석준·추경호 '3자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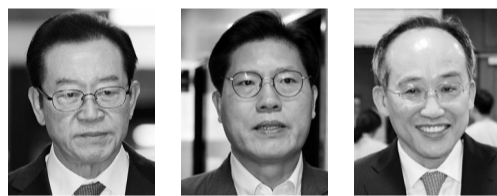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대진표가 수도권, 충청, 대구·경북(TK)의 원간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원내대표 후보 신청 결과,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종배·송석준·추경호 의원이 등록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신청하지 않았다.

경기 이전에서 3선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은 5일 "이번에 민심이 수도권에서 강하게 광풍처럼 몰아쳤다"며 "매서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받드는 책임자는 그냥 지켜보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제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종배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 중 최다선이다. 충북 충주에서 4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21대 국회 초대 당 정책위의장,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 의원은 "거대 야당과 지혜롭게 협의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이종배 송석준 추경호

정치를 하겠다. 신뢰받는 보수, 실력있는 집권여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구 달성에서 3선에 성공한 추경호 의원은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친윤 색채가 가장 짙은 후보로 꼽힌다. 국민의힘 핵심 기반인 영남권 유일 후보이자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하는 등 여야 협상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내대표 후보들은 모두 친윤계로 분류된다. 행정 관료 출신이라는 공통 분모도 갖고 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당 일각에서 요구하는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변화보다는 안정에 보다 힘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경선을 실시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음주운전' 심창욱 시의원 출석정지 20일 징계

음주운전이 적발된 무소속 심창욱 광주주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 징계가 의결됐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심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을 위한 심의를 열고 출석정지 20일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날 윤리특위 심의에는 위원장 포함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출석정지 20일 징계 수위에 동의했다.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오는 13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은지 기자

심 의원은 지난 2월 9일 오후 11시께 광주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심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저의 잘못이고, 광주시민과 동료 의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에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덧붙였다. 갑상선암으로 치료를 받은 심 의원은 음주운전 한 달여 전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진선미 의원이 지난 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박찬대(왼쪽에서 두번째) 신임 원내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

민주, 강성 지도부 재정비... 대야 강경투쟁 예고

이재명-‘친명’ 박찬대 투톱 체제 특검 추진·정국 주도권 장악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지도부를 강성 친명(친이재명) 인사로 재정비하면서 대야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로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각종 특검을 추진하며 정국 주도권 장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직전 당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찬반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선출됐다.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캠프의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한 '핵심 친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 수석부대표로 박성준(운영)·김용민(정책) 의원을 임명했다. 박 의원은 직전 대변인이고,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검찰독재정기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이다.

원내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수의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달 말 재의결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각종 개혁 입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김윤덕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규모 당직 인선을 단행해 친명계 인사들을 주요 당직에 전진 배치했다.

특히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과 김우영 정무조정실장 등은 김용민 원내수석과 함께 당내 투톱의 의중을 받들며 강경 노선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

련해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법으로 돌파할 방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밖에 없었다"며 "1~2년씩 걸려서 겨우 갈등 끝에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하는 등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하는 지체된 의사 결정이 너무 많았다. 22대 원내대표단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대처럼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첫 당선자 총회에서 "당 발전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말들은 가감 없이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초선 당선인들은 헌법 기관으로서 개인의 신념, 가치에 따라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김 여사 명품백 수사에 '약속대련'

'용산·대통령실 짜고 치는 고스톱'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용산과 대통령실의 '약속대련',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밝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은갖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수

사를 갑자기 추진하는 저의가 김 여사를 보호하려는 '약속대련'을 위해서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최대환 빠르게 수사해 이 달까지 마치라는 총장의 지침은, 김 여사에게 불은 의혹들의 꼬리표를 빨리 떼 주려는 형식적 수사를 우려하게 한다"며 "영상 증거가 다 남아 있는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척하며 다른 의혹들은 얼렁

뚱뚱 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약속대련"의 시나리오대로 검찰이 이번에도 김 여사 앞에서 꼬리를 슬그머니 내린다면 검찰은 더 이상 사법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국민께서는 총선을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명령했다"며 "수사하는 시늉만 하며 김 여사 특검법을 피해 보려는 핍수를 국민께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